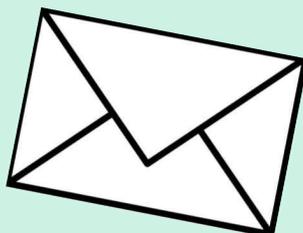


합격해 본 사람만 아는 기적의 공부 습관



SECRET LETTER

이경사의

비밀편지

“자리에 앉으면 나는 만든 책부터 본다”

수능 14등급이 알려주는 경찰 공무원 시험 합격의 핵심 노하우

순경에서 경위까지 단 한번의 낙방 없이 고속 승진한 내 남편의 비법

과연 나도 합격 할 수 있을까?

“내가 뭐라고 남들한테 얘기를 해줘.”

지인들에게 합격 노하우 좀 얘기 해달라고 부탁하면 매번 들려오는 남편의 답변이다. 순경에서 경위까지 단 한번의 낙방 없이 초고속 승진. 경장 승진 시험에서 떨어진 후 자신감 없던 나를 다음해 ‘경기도 1등’이라는 화려한 성적으로 승진하게 만든 사람.

이 남자는 학창시절 공부와는 담을 쌓았던 ‘수능 14등급’의 놀기 좋아하는 학생이었다. 그는 ‘14등급’이라는 등급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을 때 친구들에게 대체 몇 등급까지 있냐고 물어보았다고 했다. ‘당시 최하 등급은 15등급’ 아무리 세대 차이가 난다지만 난생 처음 듣는 두자리 등급이 진짜 실존하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봤던 기억이 난다. 당시에 15등급 종합등급제라고 진짜 있었다. 거의 이견 반에서 꼴등에서 두 번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등급. 쉽게 말해 어른들이 하는 얘기로 “그렇게 맞으라고 해도 못 맞겠다.” 싶을 바닥권 성적이었던 것이다. 그런 그가 단순히 오랜 시간 동안 엉덩이 붙이고 남들보다 치열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합격과 승진을 할 수 있었을까.

나의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았다. 나름 열심히 공부했고 반에서는 중상위권 성적의 학생이었지만 아무리 공부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반에서 5등 안에는 들지 못했다. 공부로 부모님 걱정은 끼쳐 드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기대하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다. 나는 집안 사정이 넉넉지 않아 국립대를 가야 하는 탓에 문과 중 가장 성적이 낮은 농대를 지원했다. 한동안 친오빠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거기 농녀 있습니까.” 라고 놀려댔었고 공무원 수험시험 역시 어찌어찌해서 컷트라인에 걸려 온 좋게 합격은 했지만 언제나 고득점은 고사하고 턱걸이로 합격하던 아슬아슬한 기억들이 많다.

나보다 먼저 승진했던 경찰 선배였던 남편에게 처음 받았던 연애편지. 그 안에는 A4용지 4장에 걸쳐 빼곡이 적힌 승진 노하우 및 공부 비법들이 적혀있었다. 당시 나와는 근무년수가 1년밖에 차이 나지 않았지만 나보다 2계급 높았던 남편. 그 방법을 그대로 실천한 이후 나는 합격은 물론 경기도 1등이라는 화려한 성적도 맞볼 수 있었다. 세쌍둥이를 낳고 엄마가 되고, 육아에 지치고 나를 찾고자 애써보기도 하고 다시 아이들 키우는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 다시 육아에 집중을 하다가... 훌쩍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자연스럽게 내 직업에 대해 잊고

지내다 최근 친한 친구의 부탁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다. 그녀들에게는 올해 5년 차 경찰시험을 준비하는 남동생들이 있다. 이번 해가 집에서 학원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주는 마지막 해라고 했다. 나 역시 다섯달동안 알바를 해서 모은 돈으로 학원비를 충당했고, 운전면허증 학원등록금이 없어 작은아버지에게 손을 벌렸던 터라 남의 일 같지 않았다. 동생 셋 중 둘은 이번 시험에서 떨어지면 공무원을 포기할거라고 했고, 나머지 한 명은 알바를 하며 공부를 계속해 나갈거라고 했다.

그렇다. 내가 남편에게 매번 하는 부탁. 내 절친들의 부탁이었다. 나 역시 찬란하게 젊은날을 초록색 울 풀린 튜리닝을 교복 삼아 지내던 시절이 있었다. 어쩌다 동창이라도 마주치면 초라한 나의 겉모습도 창피했지만 시험 결과와 함께 나락으로 떨어져버린 나의 자존감이 내 자신을 더욱 부끄럽게 느끼게 했다.

나는 멀리 사는 동생에게 보낼 영상을 직접 촬영하다 이내 부끄러워져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가능하면 빨리 보내주고 싶었다. ‘오빠가 나에게 주었던 연애편지를 버리지 않았다면 좀 더 수월했을텐데.’ 라고 생각하며 저기 오래전에 있던 기억을 되살렸다. 먼저 필기시험에서 합격 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어느 정도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주말 시간은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학원에서 공부하는지 혼자 공부하는지, 운동은 하고 있는지 등등. 필기시험에서 이미 합격을 한 경험이 있다면, 사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조금은 줄어든다. 필기 역시 운이 어느 정도 좌우하긴 하지만 실기 분야는 본인의 체력과 운동 신경 그리고 그날 컨디션 등에 따라 더 많은 운이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얘기를 해줄 수 있었었다면 더 좋았을텐데. 그렇다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을텐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린 시점에서 내가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온갖 생각이 들어 망설여지기도 했다. 하지만 망설일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 일단 동생을 합격시켜야 한다는 마음이 앞섰기 때문이다. 글 끝에는 ‘누나는 네가 포기하지 않고 이 방법대로 공부하면 분명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라는 말도 덧붙였다.

“여보, 나 공부 더럽게 못했던 오빠가 어떻게 남들보다 빠르게 합격하고 승진했는지 쓰고 싶어. 오빠가 직접 말 안해도 되고 내가 글로 쓰는거니 오빠가 누군지도 남들은 모르잖아. 내가 소설 쓰는 것처럼 그냥 써 볼게. 그 정도는 되지?”

“맘대로 하세요~.”

사실 내 남편은 30대 시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달았던 ‘경위’ 계급장을 내던지고 사회에 나와서 전투 중이다. 본인의 ‘꿈’ 을 이루기 위해 1년 전 사표를 냈

다. 주변에서는 왜 막지 않았냐고 하지만 이 사람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믿음이 간다. 승진을 했던 것처럼 사업에서도 전략을 세워 본인이 바라는 바를 이루는 것을 직접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쁜 남편을 대신해 글을 쓰는 중이다. 왜냐하면 이 방법과 마인드 연습이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 합격 턱 끝까지 갔는데 미끄러져서 자기에 대한 확신도 발 끝까지 떨어져 버린 공시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나는 남편의 공부 노하우를 전달하는 선생님같은 사람이 되고자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뿔라도 되는 냥’ ‘대단한 사람인 척’ 하는 느낌이 싫어서이다. 그는 공부의 신이라고 불리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궁금한 건 하버드에 합격한 스펙 대단한 수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조금 먼저 이룬 어떤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채용 공부하던 때에도 ‘최강 합격 군단 강사진’ 들은 학원이나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었지만 실제로 공무원 공부 방법이나 마인드에 대해서 알려주는 사람은 만나기 힘들었다.

주식에도 어느정도 인증된 방법이 있고 유튜브나 인터넷만 검색해봐도 성공 노하우들이 널리 퍼져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다. ‘방법을 아는 사람과 이를 실천하는 사람’ 의 차이일 것이다.

지금껏 본인의 공부 방법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나, 합격할만하면 여러 우환들로 인해 최종합격까지 가지 못했던 수험생들은 이제부터라도 ‘깡다구’ 에 근력을 키우고 다시 한번 본인을 믿고 도전했으면 한다. 갈팡질팡 흔들리는 마음보다 합격은 나의 것이라고 믿는 편안한 마음이 당신을 합격으로 이끈다.

그 과정이 힘들긴 하지만 지름길은 있다. 이제 나와 함께 길을 떠나자!